신화 속의 역사 〈33〉 화랑도 창설

'신라 부흥' 이끈 위화랑, 대규모 군사조직 키워 삼국통일 이루다

파로군주 아들 위화랑, 왕궁에서 주목받아
환담 통해 웃음으로 지혜 전파 전도사 유명
법흥왕 여인 '오도공주'와 외도하다 쫓겨나

딸 옥진궁주, 미색이 뛰어나 왕의 총애 받아
다시 궁으로 들어온 위화랑, 내정 등 관여해
외세침략 대응 백성들 보호 정책 만들어내
이차돈과 함께 불교를 '신라 통치이념'으로





강건한 나라 위해 '청년군사집단' 조성 온힘
귀족 자녀 물론 전국 단위 모집 화랑 창설
인재육성기관으로 발전…군사조직 발돋움







신라 화랑은 날이군 파로군주의 아들이자 소지왕의 후궁 벽화의 오라버니 위화랑에 의해 법흥왕 당시 왕가를 지키는 사설 경호집단으로 출발했다. 위화랑은 법흥왕 이후 진흥왕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선발해 청소년 군사집단으로 화랑도를 정식 출범하며 초대 풍월주가 됐다.

풍월주가 된 위화랑은 꾸준히 화랑의 세력을 확대해 전국 유력인사들의 자녀들까지 화랑으로 영입했다. 명실상부한 인재육성기관으로 발전하면서 강력한 군사조직으로 발돋움해 화랑이 삼국통일을 견인하는 조직이 됐다.

인재 육성기관으로 기능하던 화랑은 풍월주 출신 김흠돌 장군이 신문왕대에 반란을 도모하다 숙청되면서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경문왕과 효종랑 등의 인물이 화랑 출신으로 드러나 신라 멸망까지 존재했던 기관으로 설명된다.

◆신화전설: 화랑의 창설

화랑은 신라시대 최고의 군사력이자 청소년 인재 육성기관으로 기능했다. 진흥왕시대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법흥왕시대에 귀족 출신으로 조직된 왕궁 호위대 기능을 하는 사설집단으로 먼저 출발했다.

위화랑이 법흥왕에 이어 진흥왕에게 화랑의 창설을 수차례 제안하고 건의해 국가적 군사조직으로 발전시켰다. 화랑은 처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자녀 중에서 선발됐다. 귀족이라 해도 진골정통이거나 혼인으로 대원신통이 된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풍월주나 화랑은 세습이 됐고, 화랑은 출세가 보장된 신분으로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다.

위화랑은 사조직이었던 화랑을 국가조직으로 창설하고 제1대 풍월주가 되어 화랑의 어버이로 불렸다. 일부학자들로부터 삼국통일을 이룬 천년왕국 신라의 선구자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화랑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 한다. 풍월주는 제1대 위화랑으로부터 시작해 마지막 32대 신공까지 기록으로 전한다. 풍월주를 지낸 흠돌의 반란 이후 화랑의 군사적 기능이 약화됐다.

위화랑에 이어 2대 미진부공이 풍월주에 올랐다. 미진부의 아버지는 아시공이며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 삼엽궁주다. 3대 모랑은 진흥왕 당시 원화로 죽음을 당한 남모의 동생이다.

4대 풍월주 이화랑은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아들로 피부가 옥같이 부드럽고 꽃 같이 아름다우며 음률과 문장을 잘했다. 진흥왕의 동생이자 후궁이었던 숙명궁주가 이화랑과 정을 통해 원광법사와 보리를 낳았다.

5대는 토함의 동생 사다함이다. 사다함은 진흥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관산성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미실과 사랑을 나누었으나 끝을 맺지 못하고, 친구 무관랑의 죽음을 슬퍼하다 따라 죽었다.

6대 풍월주는 진흥왕의 동생이자 미실의 남편으로 전하는 세종이다.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으로도 불리는 이사부다. 진흥왕은 아버지가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세종을 동생이라 여기며 극진히 사랑하고 곁에 두었다.

7대 설화랑은 설원랑으로도 불렸다. 어머니는 금진낭주이다. 당시 화랑은 설원랑파와 문노파로 나뉘어 정통성을 따지며 대립했다.

8대는 전설적인 인물로 화랑들의 우상으로 받들어지던 문노. 미실의 지지를 얻어 풍월주의 직위에 올랐다. 문노의 어머니는 가야의 문화공주다. 문노는 사다함이 가야와의 전쟁에 나가기를 정했지만 어머니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않겠다고 사양해 의인으로 칭송받았다.

9대 비보랑은 진흥왕의 사위로 검도에 자질이 뛰어나 배우려는 낭도가 줄을 이었다. 10대는 천누나 미실의 정인이 되었던 미생랑이다. 미생랑은 진흥왕이 총애하여 곁에 두었다. 태자 동륜, 금륜과 함께 토함에게서 검을 배우고 만덕에게 춤을 배웠다. 미실이 사다함을 따르게 해 낭도가 되었다가 풍월주의 지위에 올랐다.

11대 하종 풍월주, 12대 보리공, 13대는 진지왕의 아들 용춘공이다. 14대 호림공에 이어 15대 풍월주가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이다.

16대 보종공, 17대 염장공은 비담과 함께 진덕여왕에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18대 춘추공이 뒤를 이었는데 춘추공은 화랑의 힘을 빌어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이 됐다.

19대 풍월주는 김유신의 동생 김흠순, 20대 예원공, 21대 선품공, 22대 양도공, 23대 군관공, 24대 천광공, 25대 춘장공이다.

26대 진공에 이어 27대 흠돌 풍월주는 문무왕 때에 벼슬이 높아지면서 세력을 키우고 신문왕 때 반란을 일으키다 진압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신문왕이 화랑을 폐지하기도 했다.

28대 오기공, 29대 원선공, 30대 천관, 31대 흠언에 이어 32대 신공에 와서 풍월주의 대가 기록으로는 끊어졌다.

그러나 이후 48대 경문왕이 화랑 출신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화랑은 면면히 맥을 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흔적: 화랑마을

경주시는 2018년 석장동 1272번지 일대 28만여㎡ 부지에 화랑전시관을 비롯해 궁도장, 대규모 숙박시설, 종합운동장, 교육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 수련과 휴양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전시관은 대형 강의시설과 화랑의 창설에서부터 화랑들의 활약을 소개하는 입체적인 콘텐츠로 화랑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공연장과 호국야영장, 화랑모험시설, 풍월도전대 짚라인, 수의지와 어울마당, 임신서기석, 관광무예체험장 등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로 청소년들의 수련을 지원한다.

한옥체험관으로 육부촌을 설치해 청소년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화랑마을에서 숙박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와 공연 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했다.

화랑마을 강영숙 촌장은 "화랑마을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교육, 관광, 휴양단지로서 경주시가 운영하는 종합청소년수련시설"이라며 "누구나 공원시설과 수영장, 국궁장, 화랑의 길 등 부대시설을 이용해 신화랑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스토리텔링: 신라 초대 풍월주 위화랑

위화랑은 날이군 파로군주의 아들이다. 또한 경국지색으로 소지왕의 후궁이 된 벽화부인의 오라버니이기도 하다. 벽화가 소지왕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 왕궁에서 살게 된 인물이다.

위화랑은 만권의 책을 읽어 심계가 깊고 지혜로운 인물로 무예까지 뛰어나 왕궁에서 주목받게 됐다. 그는 지증왕의 아들 원종을 가르치는 스승이 됐다. 이어 자신의 누이 벽화를 법흥왕의 후궁이 되도록 천거해 왕실에서도 본인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위화랑은 벽화와 같은 혈육을 입증하듯 외모도 출중했다. 여성보다 섬세한 미모와 눈이 부실정도로 고운 피부에다 준수한 행동거지로 여인들의 뜨거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위화랑은 항상 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시를 짓고, 환담을 통해서도 웃음으로 지혜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다.

그러나 위화랑은 법흥왕의 여인 오도공주와 사랑을 나누다 왕에게 벌을 받으면서 궁에서 쫓겨났다. 법흥왕은 외도를 범한 오도공주를 아시공에게 하사하고, 아끼던 벽화부인도 비량공에게 보내버렸다.

서라벌에서 멀어진 위화랑은 쓸쓸하게 술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위화랑은 모든 것에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위화랑과 오도공주의 딸 옥진궁주가 자라면서 미색이 뛰어나자 법흥왕의 총애를 받게 됐다.

위화랑은 딸이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궁으로 돌아와 내정 깊숙이 관여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다. 위화랑은 법흥왕이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준데 대해 감사하며 그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수선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잦은 외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백성들을 보호할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다.

이때 위화랑은 이차돈과 교분을 쌓고 불교에 심취해 새로운 교리를 공부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위화랑은 드디어 자기 허벅지를 소리나게 쳤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행복해하거나 고통스러워 한다. 이는 모두 마음에 있으니 삶의 고통도 생각하기에 따라 행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위화랑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불교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위화랑은 이차돈과 함께 법흥왕에게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뿌리깊게 전해지고 있는 토템과 무속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고심 끝에 위화랑과 이차돈은 최후의 수단으로 순교를 선택하고, 왕을 설득했다. 결국 법흥왕은 두 신하의 끈질긴 주장을 받아들여 불교를 신라의 통치이념으로 뿌리를 내리게 했다.

위화랑은 다시 강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우수한 청년집단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왕의 호위무사집단 화랑을 국가적인 대규모 군사조직으로 양성한다면 삼국 어느 나라에도 지지않는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위화랑은 귀족들의 자녀는 물론 전국에서 자질이 우수한 청년들을 모집해 화랑을 창설했다. 그가 제1대 풍월주가 되어 화랑도들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며 학문과 예술, 무예를 두루 수련하며 지리를 익히도록 했다. 화랑은 점차 성장해 나라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다.

위화랑은 화랑을 창설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도록 해 결국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을 마련한 최고의 공신이라 할만하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이 글은 문화산업화를 위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므로 일반 기록물 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공지능 AI가 그린 신라 초대 풍월주 위화랑이 화랑들의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모습. 2 경주 화랑마을 언덕에 설치된 태권도 조각상. 3 화랑마을 전시관 내부에 설치된 화랑상. 4 신라 화랑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신화랑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주 화랑마을. 5 화랑마을 전시관 진입로 풍경.



